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2021년5월14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001 천 km ² 	인구 1.0억 명 (2020년 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친사우디·UAE 
GDP 3,618.5억 달러 (2020년 기준) 	1인당GDP 3,587.0 달러 (2020년 기준) 	통화단위 Egyptian Pound 	환율(U\$기준) 15.76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대국으로, 리비아(동쪽)와 수단(남쪽) 및 가자지구, 이스라엘(서쪽)과 지중해(북쪽)에 접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
- 이집트 경제는 관광업,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 등 대외 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2020년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정부의 선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견조한 소비 등에 힘입어 3.6%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세가 안정화되었으나 정부의 권위적인 태도, 재정건전성 정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높은 청년실업률 등은 사회불안 요인임. 다만,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반정부 시위의 세력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집트는 미국, 유럽,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에티오피아와는 에티 정부의 그랜드 르네상스 댐 건설에 따른 담수·운영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5. 4. 13 수교 (북한과는 1963. 8. 24)

주요협정 항공협정('88), 문화·과학·기술협정('89), 이중과세방지협약('94), 투자증진·보호협정('97), 외교관·관용·공무·특별사증면제협정('98), 무역협정('9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0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1,846,769	1,573,207	1,215,173	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 입	312,645	282,013	345,511	석유제품, 식물성 물질, 천연가스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55건, 408,10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4.3	4.1	5.3	5.6	3.6
소비자물가상승률	10.2	23.5	20.9	13.9	5.7
재정수지/GDP	-12.5	-10.4	-9.4	-8.0	-7.9

자료: IMF, EIU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취임 후 4~5%대의 견조한 경제성장 시현

- 이집트 경제는 반정부 시위(2011년), 쿠데타(2013년)로 촉발되었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취임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FDI, 해외원조 등이 증가하여 2015년부터 4%대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8~19년에는 안보 강화를 통한 관광업 회복,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건설업 호황 등으로 5%대의 성장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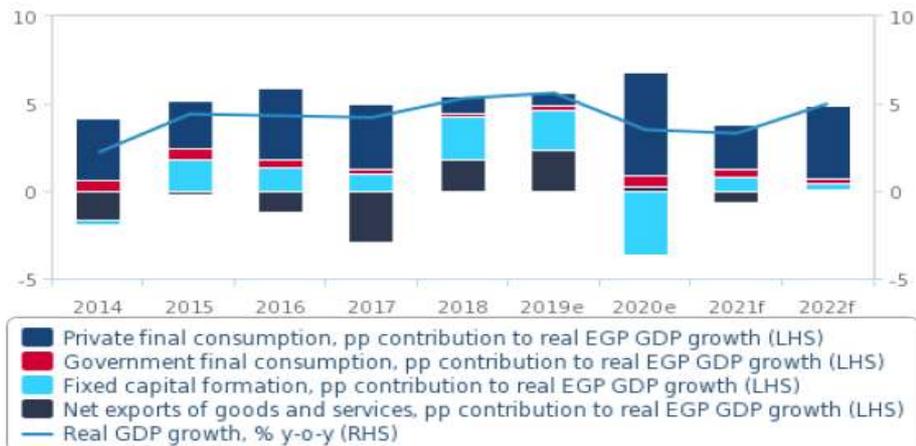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한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다수 국가가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이집트 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보건·사회보장 지출, 코로나19 피해업종 자금 지원, 코로나 대책 기금 조성)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타격을 극복하고 3.6%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Fitch Solutions는 이집트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2019/20회계연도(2019.7.1.~2020.6.30.) 7.2%, 2020/21년 3.0%로 추정

- 이집트 정부는 금리 인하, 일부 피해업종 앞 긴급자금 지원, 일부 계절노동자 앞 긴급생계비 지원, 세금 감면·면제, 공과금·요금 인하, 대출상환기간 유예(6개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6월 간 국가봉쇄령을 단행한 후 상대적으로 빠른 7월 초에 공항·주요 관광지를 재개방하여 관광업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연도별 GDP 구성요소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2021년에는 2~3%대의 소폭 경제성장 전망

- 2021년 이집트 경제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진행 및 이에 따른 건설업 활성화, 통화정책 완화 기조(現 정책금리 8.25%)에 따른 고정투자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 회복 불확실성 확대 및 관광업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성장률은 2~3%대에 그치고, 2022년에서야 코로나19 백신 효과 가시화 및 관광업 회복 등으로 5%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는 홍해 연안의 아인 수크나(Ain Solkhna)에서 카이로를 거쳐 동지중해의 엘알라메인(El-Alamein)을 연결하는 총 1,000km 길이의 고속철로(90억 달러, 연간 GDP의 2.4%)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며, 홍해 서부 해변의 마르사 알람(Marsa Alam) 내 포트 갈립(Port Ghalib) 관광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20억 달러)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 중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주요 기관별 이집트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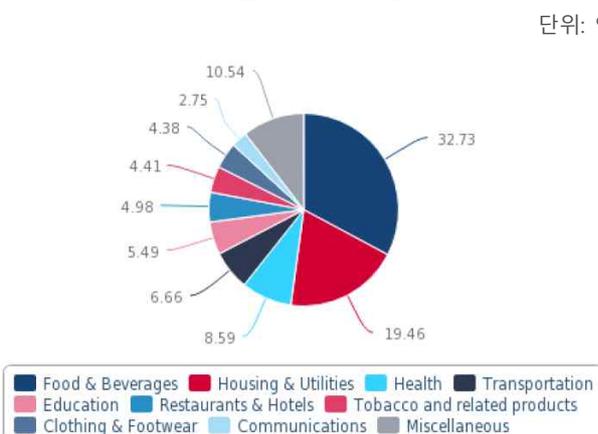
연도	IMF(4월)	세계은행(4월)	EIU(4월)	AfDB(3월)	Fitch Solutions(2월)	IHS Markit(4월)
2021년	2.5	2.3	3.6	3.0	3.2	2.9
2022년	5.7	4.5	3.1	4.9	5.0	4.6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7%로 안정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중 부가세 도입(13%, 2017.7월부터 14%),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2017년 23.5%를 기록하며 전년(10.2%) 대비 급격히 상승(13.3%p ↑)하였으나, 이후 환율이 점차 안정되며 2018년 20.9%에서 2019년 13.9%로 대폭 안정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에너지·수입재 국제가격 하락, 정부의 자국농업 현대화 및 공급 물류체계 개선 등에 기인한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완만한 민간소비 증가와 비교적 안정화된 환율 등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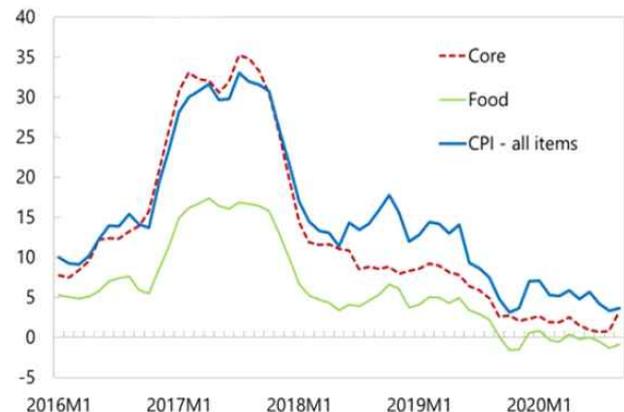


자료: Fitch Solutions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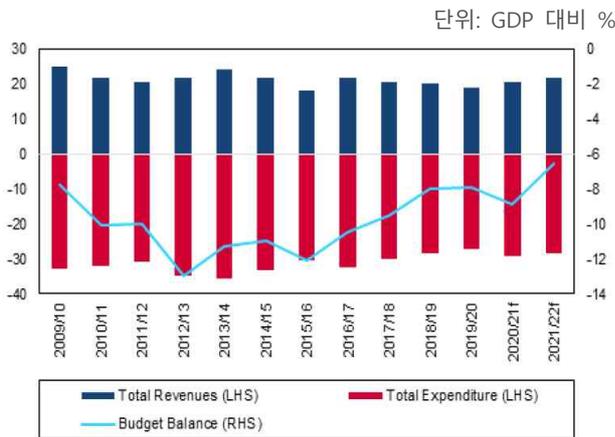
자료: IMF

국내경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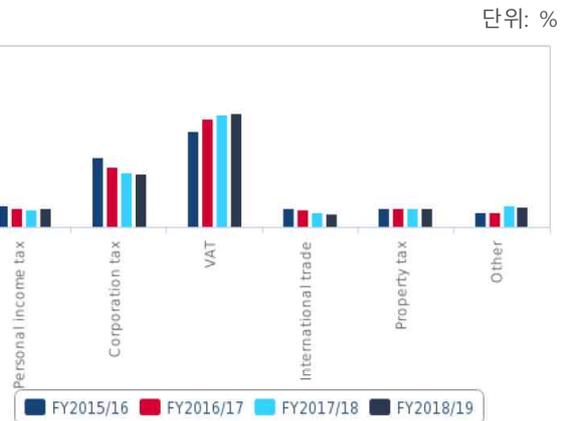
- 부가세 도입 및 세금 인상, 연료 보조금 예산 삭감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세원 확충 및 재정지출 삭감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12.5%에서 2020년 7.9%로 크게 하락하였음.
- Fitch Solutions는 2020/21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관광업 보조금 지급 및 저리의 대출 지원 등)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었다가, 2021/22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성 자금지출 감소로 6.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확대 없이 보건, 교육,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자금 조달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관련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정부의 수입-지출 규모



자료: Fitch Solutions

품목별 조세 수입



자료: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20,494	-7,940	-7,698	-10,222	-13,449
경상수지/GDP	-6.2	-3.4	-3.1	-3.4	-3.7
상 품 수 지	-31,048	-29,065	-29,590	-29,285	-27,455
상 품 수 출	20,018	23,339	28,046	28,472	25,067
상 품 수 입	51,066	52,404	57,635	57,758	52,522
외 환 보 유 액	19,735	32,072	37,642	40,027	33,423
총 외 채	67,641	84,429	100,186	115,080	130,819
총외채잔액/GDP	20.3	35.7	40.0	38.1	36.2
D.S.R.	10.3	8.8	7.5	9.3	17.7

자료: IMF, EIU, OECD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율은 비교적 제한적

- 2020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GDP의 3.7% 수준으로, 주요 외화소득원인 관광 수입,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 해외근로자 송금의 동반 감소에 따른 서비스수출액 감소를 상품 수입액 감소가 상당 부분 상쇄하였음.

회계연도별 이집트 국제수지 주요 항목

단위: GDP 대비 %

	2018/19	2019/20	2020/21 ^f	2021/22 ^f	2022/23 ^f
경상수지	-3.6	-3.1	-4.2	-2.5	-2.5
상품수지	-12.6	-10.1	-8.7	-6.7	-8.2
서비스수지	4.3	2.5	1.0	1.1	2.6
(서비스수출)	8.1	5.9	3.4	4.6	6.4
(관광 수입)	4.2	2.7	0.6	1.6	3.2
(수에즈 운하 통행료)	1.9	1.6	1.5	1.5	1.5
본원소득수지	-3.6	-3.1	-2.8	-3.5	-3.2
이전소득수지	8.3	7.6	6.2	6.4	6.2
(해외근로자 송금)	8.2	7.6	6.2	6.4	6.2
자본·금융계정	1.4	-0.1	2.0	3.1	3.5
포트폴리오 순투자	1.4	-2.2	2.5	1.7	1.8

자료: IMF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부채 관리 필요

- 외환보유액은 2016년 197억 달러에서 2019년 40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화소득원(관광 수입,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의 결과 33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다만,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5.4개월분 규모로 단기간 유동성 위험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020년 5월 IMF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에 이어 6월 IMF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승인 후 대규모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2020년 5월 50억 달러의 유로본드 발행 및 9월 MENA 지역 최초로 7.5억 달러의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음.
- IMF의 2020년 12월 공적채무 및 외채상환가능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채무 수준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신흥시장 벤치마크 수준인 GDP의 70%를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 시 부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 기본 가정: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5.5%,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7%
- IMF는 이집트의 공적채무가 2018/19회계연도 GDP의 84%에서 2020/21년에 93%로 상승하겠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회복하여 중기적(2025/26년)으로는 GDP의 75%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 지연, 높은 이자율, 재정건전화 정책 지연,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선진국 경기 회복 및 금리 인상 가능성(미국)에 따른 신흥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주된 채무상환 위험요인이나, 정부의 공적채무 만기 연장·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 노력, 국제시장에서의 현지 금융기관의 활발한 참여 등은 동 위험을 경감시키는 요인임.
- IMF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채권 보유비율은 22%, 외화표시채권 비율은 26%로 고위험 벤치마크(각각 45%, 60%) 수준을 크게 하회(긍정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 노력(목표: 평균 부채 만기 5년)으로 평균 부채만기가 꾸준히 증가(긍정적)하고 있음.

이집트의 공적채무 및 외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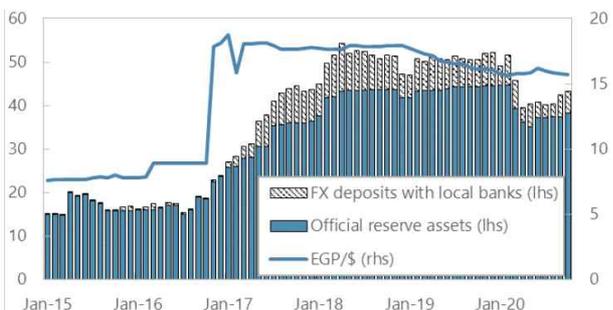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구분	2019	2020	2021 ^f	2022 ^f	2023 ^f
공적채무	84.2	90.2	93.0	89.6	86.9
외채	36.0	34.1	33.9	30.8	27.3

자료: IMF

외환보유액 및 현지은행의 외환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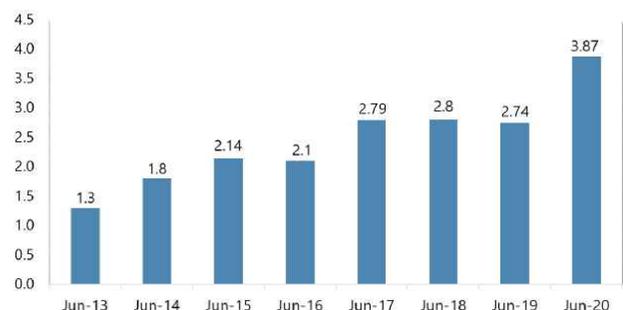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IMF (원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평균 부채 만기

단위: 년



자료: IMF (원자료: 이집트 재무부)

구조적취약성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구조

- 이집트는 중동·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국으로 피라미드, 스픝크스, 왕가의 계곡 등 고대 문명지부터 휴양도시(샤름 엘 셰이크, 후르가다)까지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가 경제의 주축 산업인 관광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임.
-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이집트의 관광업은 2019년 기준 GDP의 9.3%(295억 달러), 고용의 9.7%(2.5백만 명), 총수출의 26.2%(14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관광업은 산업 특성상 외부환경에 민감하여 주요 관광지인 치안 악화, 세계 경기침체, 감염병 발생 등 정부 통제 영역 밖에 있는 외부 변수에 크게 취약한 구조를 지님.
- 일례로 2015~17년에는 테러 발생으로 관광업이 급격히 침체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대테러 작전 및 치안 강화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다시 침체된 상황임.
- 2015년 6월 룩소르 신전 자살 폭탄 테러, 2015년 10월 러시아행 여객기 폭발 테러(IS 소행 추정, 2015년 10월부터 이집트-러시아 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 후 2018년 4월 재개) 및 2017년 카이로 콥트 교회에서의 폭탄 테러 발생 등으로 치안에 불안을 느낀 관광객들의 유입이 급감하였음.
- 이집트 정부는 2017년 콥트 교회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즉각 선포하였으며, 2018년 대테러 최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IS 지부가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해 대테러 군사작전을 펼치는 등 치안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였음.
- 2020년 3월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주요 관광지인 남시나이주, 홍해주, 룩소르주, 아스완주 등에서 호텔·식당 운영 중단, 항공편 운항 중단,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이후 2020년 6월 통행금지와 관련된 일부 완화 조치에 이어 7월 1일로 일부 국제선 항공운항을 재개한 바 있음.
- 한편, 대대적인 홍보 속에 2020년 중으로 예정되었던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음.
- 관광업은 세계적 코로나19 재유행,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백신 보급 지연 등으로 2021년까지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이 국내외 충분히 보급되고 국가 간 이동제한이 완화된 후에야 유럽, 중동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관광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기준 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분포: 독일 15%, 사우디아라비아 8%, 수단 4%, 영국 4%, 리비아 4%, 기타 65% (출처: 세계여행관광협회)

구조적취약성

2021년 3월 에버기븐 호 좌초로 수에즈 운하 운영 관련 손실 발생

-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인도양을 잇는 아시아와 유럽의 최단항로로 세계 교역 물동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연간 선박 이동량은 약 18,500척(일 평균 51.5척)으로,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은 이집트의 주요 외화소득원임.

* 1869년 개통, 길이 193km, 폭 205m, 수심 24m, 2015년 총 공사구간 72km(35km 신규, 나머지 구간은 기존 수로의 확장·준설로 운하화)의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양방향 운항 가능

** 중동산 원유의 주요 항로로 하루 평균 세계 석유 물량의 7%인 190만 배럴의 원유 이동

- EIU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통행료 수입은 연 58억 달러로 경상수지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인해 2020년 선박 이동량 및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6.5%와 3.4% 하락하였음.

- 2021년 3월 23일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운영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 호*의 좌초(수에즈 운하 남쪽 입구에서 약 6km 떨어진 지점)로 운하가 6일 동안 마비되어 선박 통행이 불가능(3월 29일 부양)하였으며, 수에즈 운하청(SCA)은 11일 만인 4월 4일에야 운하의 완전한 정상화를 발표하였음.

* 길이 400m, 무게 20만t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선적 가능 컨테이너 수 20,000개 중 당시 18,300개 컨테이너 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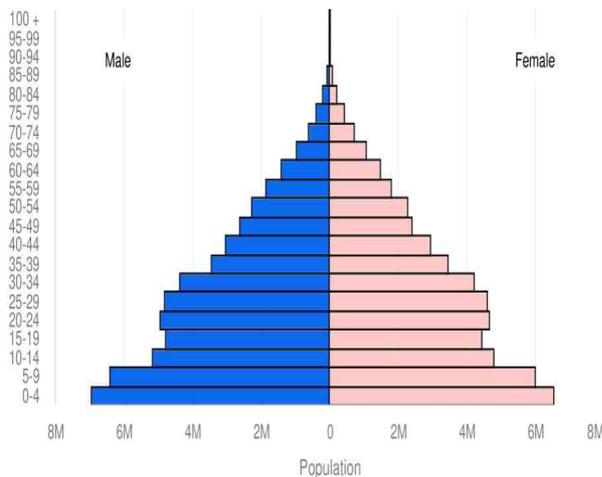
- 수에즈 운하청은 운하 통행 마비에 따른 피해(운송료)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 손실 보상금 9억 1,600만 달러를 선박 소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에 요구하였으며, 4월 13일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에버기븐 호의 항행 금지 조치를 내림.
- 동 사건은 수에즈 운하 마비를 통한 물류 대란으로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으나, 모래 폭풍이라는 불가항력적 변수와 에버기븐 호의 기술적 오류가 빚은 6일 간의 운항 마비가 극히 드문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수에즈 운하와 인프라 환경에서는 초대형 화물선(20,000TEU 이상)이 지나가기에 위험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음.
- 이집트 정부는 에버기븐 호 사건으로 수에즈 운하가 세계 무역(물류)에서 갖는 중요성뿐 아니라, 현 정부의 수에즈 운하 관련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5월 이집트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수에즈 운하 남쪽 부분에 대한 확장 계획을 밝혔음.
- 한편, 4월 11일 이집트 은행들은 수에즈 운하 경제개발구역의 인프라·물류·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100억 이집트 파운드(약 6.4억 달러) 규모의 장기(10년) 차관을 승인하였음.
- 두바이 DP World가 운영 중인 소크나 항구(Sokhna Port)의 확장 개발도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임.

성장잠재력

아프리카 내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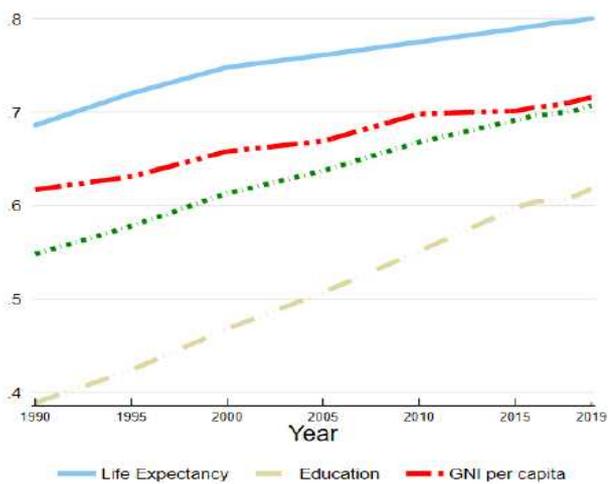
-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집트의 중위연령은 24.1세(남성 23.8세, 여성 24.5세, 2020년 추정, CIA)로 노동 가능인구가 풍부할 뿐 아니라 숙련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57.2%(UNDP)에 해당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UNDP에 따르면 이집트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은 71.2%이며, 2차 교육과정 취학률은 88%, 3차 교육과정 취학률은 35%임.
- 또한, 이집트의 2019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¹⁾는 0.707(116위/189개국)을 기록,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아랍 국가들과 비교 시에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1990~2019년 동안 HDI는 0.548에서 0.707로 꾸준히 상승(29%)하였음. 세부적으로는 동 기간 중 기대 수명은 7.4년(64.6년→72.0년), 평균 교육기간은 3.9년(3.5년→7.4년), 기대 교육기간은 3.5년(9.8년→13.3년) 증가했으며, 특히 1인당 GNI의 상승폭(93.4%, 5,930달러→11,466달러)이 두드러졌음.
- * 중동 국가 평균 HDI는 0.705, 기대수명은 72.1세, 평균 교육기간은 8.4년, 기대 교육기간은 14.0년(UNDP)
- 2019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인적자본 중 現노동인구의 교육·기술 부문)에 따르면 이집트의 평균 교육연수는 141개국 중 97위, 직원교육 수준은 75위,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은 129위, 대졸자의 기술 수준은 133위,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는 44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은 87위로 직업훈련 확대와 고학력자의 기술 관련 개발이 특히 긴요한 것으로 분석됨.

2021년 이집트 연령대별 인구 구성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1990~2019년 이집트 HDI 구성요소별 지수 추이



자료: UNDP

1)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①기대수명(평균수명), ②교육 수준(취학연령의 기대 교육기간,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기간), ③소득수준(1인당 GNI, PPP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성장잠재력

에너지 부문의 높은 개발잠재력

- 이집트는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2020년 기준 상품수출의 30.1%, EIU)으로, 2019년 기준 석유 생산량은 일평균 68.6만 배럴(세계 점유율 0.7%, 아프리카 5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649억 입방미터(세계 점유율 1.6%, 아프리카 2위)를 기록하였음(자료: BP).
- 한편, 자국 생산 천연가스가 국내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발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2월 동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가스전과 2018년 Atoll 가스전 등이 순차적으로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2018년 9월 천연가스의 자급자족을 선언하였음(단, 기존 이스라엘과의 계약에 따라 가스 일부는 여전히 수입 중).
- 이집트 정부는 잉여 에너지 수출을 통해 역내 에너지 허브가 되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지중해 연안의 다미에타(Damietta)에 위치한 LNG 플랜트를 가동 중단 8년 만인 2021년 2월 재가동하였음.
-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Tarek El Molar 석유장관은 다미에타 LNG 플랜트가 연간 45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이집트는 국토의 96%가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 태양에너지 개발에 적합하며, 국토의 90%가 풍력발전에 적합하여 풍력발전 개발의 잠재력 또한 높음.
- 이집트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전력재생에너지부는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2년까지 20%, 2035년까지 4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성과

IMF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등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노력

- 이집트 정부는 2016~19년 간 진행되었던 재정건전성 강화(부가가치세 도입·인상,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변동환율제도 채택 등 IMF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이후 IMF는 이집트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신속금융제도(RFI) 및 6월 대기성차관(SBA)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전액을 일시 집행하는 RFI와 달리 SBA는 12개월 프로그램으로 현재 집행 일정에 맞춰 분할 집행 중임.
-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한 긴급 위기대응 정책(보건·사회보장 프로그램, 취약계층·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및 국제수지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이집트에 27.72억 달러 규모의 RFI를 제공하였음.
- 또한,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이집트에 52억 달러 규모의 SBA를 지원한 바 있음.
- IMF는 SBA로 2016년 이후 일련의 IMF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개혁 성과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회복지 지원과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기적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한편, 이집트 정부는 동 차관을 통해 공적채무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보건 지출 재원을 확보하고, 변동환율제도 유지 하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및 금융 안전성을 지속하며, 투명성·거버넌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021년 3월 말 기준 이집트 앞 IMF 차관 지원 현황^{주)}

단위: 천 SDR

자금종류	약정일	집행기한	약정액	집행액	잔액
대기성차관(SBA)	2020.06.26	2021.06.25	3,763,640	2,605,600	2,605,600
신속금융제도(RFI)	2020.05.11	2020.05.13	2,037,100	2,037,100	2,037,100
확대신용공여(EFF)	2016.11.11	2019.07.29	8,596,570	8,596,570	8,596,570
합계	-	-	14,397,310	13,239,270	13,239,270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np/fin/tad/extarr2.aspx?memberkey1=275&date1Key=2021-03-31>

주: 현재 잔액이 있는 지원 건

금년부터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이집트 경제개발회의에서 수도인 카이로의 인구 과밀현상 완화를 위해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부지 규모 700km²의 신행정수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 이전 공사와 동시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공항, 호텔, 상업지구, 주거지구, 모스크 등의 공사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2020년 중순 경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엘시시 대통령은 이전 계획을 2021년 중순으로 연기하였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정부 서비스는 2021년 7~8월 중 신행정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임.

정치안정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세 안정화

- 2011년 '아랍의 봄'(민주화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2012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이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이슬람주의단체 무슬림형제단과 그 반대파인 세속주의 세력 간의 정치 갈등으로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음.
- 2013년 6월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7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엘시시가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였음. 이후 엘시시는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집트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 엘시시 대통령은 201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2024년 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개헌(기존 2회 연임 제한)을 통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음.
- 보조금 삭감, 세금 인상, 권위주의적 태도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으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엘시시 대통령은 75세가 되는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20년 상원 및 하원 선거를 통해 엘시시 행정부의 지지기반 확보

- 2020년 7월 상원 선거에 이어 같은 해 12월 하원 선거에서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 다수를 확보함에 따라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 강화되어 기존 정책은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EIU에 따르면 후보 선출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보다 친정부 성향 출신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음.
- 국가미래당은 2013년 반무슬림형제단 청년운동 주도자를 중심으로 2014년 창설된 친정부 성향의 정당이며, 공화국민당과 국가수호당도 친정부 성향이 매우 강한 정당임.

2020년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정당별 의석수
상원	국가미래당(Future of a Nationa Party, FNP) 149석, 무소속 88석, 기타 25석, 공화국민당 (Republican People's Party, RPP) 17석, 국가수호당(Homeland Defenders Party, HDP) 11석, 와프당(New Wafd Party, NWP) 10석 ※ 상원은 개인후보제 100석, 폐쇄형 정당명부제 100석, 대통령 지명 100석 (총 300석)
하원	국가미래당(FNP) 316석, 무소속 124석, 기타 57석, 공화국민당(RPP) 50석, 와프당(NWP) 26석, 국가수호당(HDP) 23석 ※ 하원은 개인후보제 284석, 폐쇄형 정당명부제 284석, 대통령 지명 28석 (총 596석)

자료: IHS Markit (원자료: CIRCA People in Power)

사회안정

사회적 불만 확산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통제

- IMF의 EFF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 고강도 경제개혁(증세, 보조금 감축,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 및 정책 시행, 높은 빈곤율 및 청년실업률 등으로 국민들의 내재적 불만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확대는 정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다만, 반정부 세력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정부 세력의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국가비상사태 하에 테러 진압 및 반정부 세력화 통제

- 2017년 4월 카이로 콥트 교회에서 일어난 IS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최소 44명의 콥트 기독교인 사망)로 국가비상사태가 최초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 중이며, 이집트 군경은 대통령령(국가비상사태)에 따라 국가 전역의 안보 유지와 테러 위협 대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북시나이 반도 내 엘아리쉬市를 제외한 가자 지구 접경 라파 국경 인근 지역에 대한 야간통금(19시~익일 06시)도 연장 중임.
- 한편,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극단주의 테러 활동 뿐 아니라 집회·시위도 안전·테러위협으로 간주되어 시위대에 대한 체포·구금이 가능하므로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 이집트 군경은 2018년부터 북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특히 IS 무장단체)을 수행 중으로, 2018~20년 7월까지 대테러전으로 인해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범 800여명, 이집트군 70여명이 사망한 바 있음. 2017년 이후 테러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북부의 주요 해안도로 인근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1년 1월 보고서에서 이집트에 4등급(Highly Negative)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부여하였으며, ESG 요소가 이집트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환경)** 나일 강에 대한 높은 수자원 의존도 및 인구과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고려하여 4등급을 부여하였음. 나일 강의 연간 강수량 감소로 깨끗한 수자원 고갈률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담수화 플랜트 건설과 쌀·사탕수수과 같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이집트 인구의 10~25%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평가됨.
- **(사회)** 증가하고 있는 젊은 노동인구를 수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낮은 고용률(청년실업률 25% 초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성불평등 수준은 사회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4등급을 부여함.
- **(지배구조)** 저조한 시민참여와 낮은 책임성,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견제 기능 부족 등을 반영하여 4등급을 부여하였음. 한편, 최근의 경제·재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공적채무 비율로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임.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총 107개국) 중 4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45개국임.

국제관계

에티오피아의 일방적인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나일 강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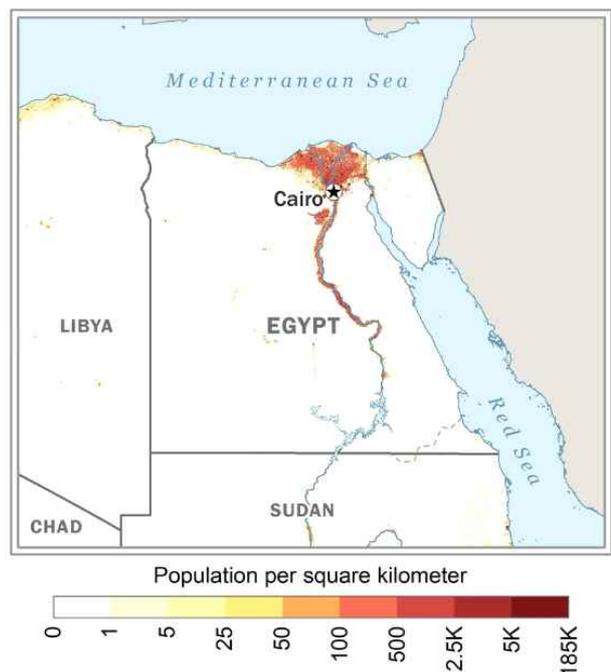
-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전력난 해소, 경제개발 및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나일 강 분지 상류에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 댐(6,000MW급 발전용량)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건설 중이며, 나일 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수원 공급 문제)·수단(댐 운영 차질)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2020년 7월 1차 담수(49억 m³)를 감행하였음.
- 이집트 인구의 약 95%가 나일 강 및 델타로부터 20km 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농업이 GDP의 12.1%(EIU)를 차지하는 등 나일 강은 이집트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의 필수자원임. 이집트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댐 담수가 자국민의 수원 공급에 심각한 차질(특히 가뭄 시)을 초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에티오피아·수단과 담수(시기, 담수량) 및 운영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3자 회담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법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3국의 이견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협상 의지 부족과 비타협적 태도가 협상의 진척에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2월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회담 협상 불참 후 2021년 4월 AU 의장(DR콩고 대통령) 주관의 킨샤사 협상(4.4.~5)에서 이집트·수단의 제시(안)을 전면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집트·수단과의 협정 체결 없이 2차 담수(135억 m³)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국제사회 앞 공한 발송(2021년 4월, UN 사무총장, 안보리·총회 의장), 각국 정상 간 통화(영국, 프랑스 등), 연대 촉구(아랍국가), 순방(아프리카 6개국 예정, 케냐·코모로·남아공·DR콩고·세네갈·튀니지) 등을 통해 그랜드 르네상스 댐을 둘러싼 3국 간 갈등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여전히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랜드 르네상스 댐 위치



자료: EIU

이집트 인구 거주 분포도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국제관계

미국, EU,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우호적 관계 유지

- 이집트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 EU와 지속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와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로부터의 경제적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업금융(대출)과 FDI를 통해 인프라 건설(고속철, 도로 등), 플랜트, 통신, 운송 등 이집트의 주요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공급원이 되었으나, 과도한 중국 자금 차입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중국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따른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
- 일례로 중국이 대규모 투자 및 차관을 제공한 신행정수도 중앙 상업지구 2단계 개발사업(35억 달러 규모)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이기도 한 수에즈 정유·화학 플랜트 사업(61억 달러 규모)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터키와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 소요 필요

- 이집트와 터키는 리비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동지중해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분쟁 등 에너지(가스전) 및 경제적 이권을 두고서도 대립 관계에 있음.
-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이후 현재까지 내전 중인 가운데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UAE는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반군 세력인 리비아 국민군(세속주의 표방)을, 터키는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7월 이후의 터키의 그리스 크레타 섬 부근 등 동지중해 상에서의 천연가스·지질 탐사로 해당 지역 내 EEZ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이집트·그리스·키프로스^{*}와 터키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음.
- 이집트 외교부는 터키의 탐사에 대해 이집트 EEZ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집트와 키프로스는 2013년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여 동지중해 EEZ 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양국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나, 터키는 해당 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이후 터키와 리비아도 2019년 11월 해양경계획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집트·그리스는 해당 협약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 협약이라 주장하였음. 한편, 이집트는 2020년 8월 그리스와 해양경계 획정협정을 체결하여 동지중해의 해상권을 둘러싼 이들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동지중해에서의 에너지 협력 증진과 對터키 견제 기능을 위해 2019년 1월 동지중해가스포럼(Eastern Mediterranean Gas Forum)^{*}을 출범시켰으며, 2021년 3월 1일 설립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본부: 카이로)된 상태임.
- * 창립 회원국은 6개국(이집트, 키프로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이며 2021년 3월 프랑스가 추가 가입함(미국은 옵서버 국가).
- 터키는 2021년 3월 3일 이집트와 새로운 해양경계협정 체결 협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이집트와의 관계개선 의사를 비쳤으며, 5월 5~6일 동안 이집트 및 터키 정부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 논의를 위한 정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관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2020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 미미

- 2020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이집트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총 215.9억 달러(단기 14.3억 달러, 중장기 201.6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0.38%(연체금 0.8억 달러)의 미미한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파리클럽과 2차례에 걸친 채무재조정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과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상환완료)와 212억 달러(상환 중) 규모의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01)	5등급(2020.01)
Moody's	B2 (2021.01)	B2 (2020.05)
Fitch	B+ (2021.03)	B+ (2020.07)

2020년 팬데믹에도 OECD와 Fitch, Moody's 모두 기존 평가등급 유지

- 이집트에 대한 OECD 평가등급은 현재 5등급으로, 2019년 1월 관광업 회복,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개선,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 등을 감안하여 6등급에서 5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Fitch와 Moody's는 2019년 3월(B→B+)과 4월(B3→B2)에 각각 이집트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외환보유액 수준, 금융시장 접근성, IMF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 실적, 2022년 이후 국제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재 '안정적' 전망을 모두 유지 중임.

- 2020년 이집트 경제는 관광업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3.6%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각각 -7.9%, -3.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13.9%에서 2020년 5.7%로 크게 안정화되었음. 외채 관련 지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부채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취임한 엘시시 대통령은 헌법 개정(대통령 임기 연장, 연임 제한 완화)을 통해 2024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며,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20년 상원(7월), 하원(12월) 선거에서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 다수를 확보하여 엘시시 정권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음.
- IMF 프로그램에 따른 고강도 경제개혁,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 생활고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존재하나 언론과 반정부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반정부 세력 확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미국, 유럽,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이집트·수단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나일 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